

부안수협 어판장 매각 특혜 의혹

어촌계에 넘긴 후 다시 수협 이사에 되팔아

부안군 진서면 곰소리 842번지 어판장(옛 부안수협 소유) 건물 매각을 둘러싸고 특혜에 대한 특혜 매각 논란이 수년째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특혜시비는 부안수협이 어판장 매각과정에서 진서 비법어촌계를 우회로 거쳐 현재 부안수협 이사로 재직 중인 B씨가 대표로 있는 웅진영어조합법인으로 소유권을 넘기면서 그 배경에 대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부안수협은 곰소항 인근 국유지 2014㎡ 부지를 장기 임대해 건축면적 912㎡ 규모의 2층 건물로 세워진 어판장을 지난 1980년부터 2010년 3월 까지 수협에서 관리하며 30여년 동안 지역 어민들을 위해 운영해오다 어판장 건물을 매각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부안수협이 진서면 어촌계에 건물을 매각한 뒤 한

달도 안돼 어촌계가 다시 부안수협에 이사인 B씨가 설립한 웅진영어조합법인에 같은 값에 되팔아 수협조직 내 내부자 거래 의혹이 커지고 있다.

부안수협은 지난 2010년 3월 2일 부안군 진서면 곰소리 소재 진서 비법어촌계에 2억2100만원에 매각해 소유권을 넘겼다.

하지만 소유권을 넘겨받은 진서 비법어촌계는 어찌된 일인지 1개월도 되지 않은 3월 31일 다시 어판장 건물을 웅진영어조합법인에 2억2100만원을 받고 되팔았다.

현재 어판장 건물을 사들인 B씨는 이를 다시 지역 상인들에게 음식점과 젓갈 판매장 등으로 임대사업을 벌여 매달 1000여만원이 넘는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어 당초 수협의 매각 의도와 전혀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

웅진영어조합법인은 2010년 4월 8일

B씨 가족들을 대거 이사로 등재한 법인이며 어판장 소유권이 진서 어촌계에 넘어간 직후 어판장 매입을 위해 급하게 만든 법인으로 편법 매각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상인들은 수협이 곰소항 중심 상권에 자리한 어판장 건물을 부안수협 이사로 재직 중인 특정인에게 매각해 편법적으로 내부자 거래를 통한 특혜를 주고 받았다는 의혹을 거두지 않고 있다.

지역민 김모씨는 "부안수협이 곰소항 어민들을 위해 국유지를 임대해 준 건 어판장 건물을 결과적으로 수협 직원에게 팔아 넘겨 특정인의 배만 불러준 셈이 됐다"며 "수협이 어판장 건물을 지역 어촌계에 매각한 뒤 한 달도 안돼 다시 수협 비상임이사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정황을 보면 특정인에게 건물을 넘겨 주기 위한 꼼수 매각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회수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진서 비법어촌계 관계자는 "2010년

그 당시에는 수산물 판매목적으로 매입했는데 매입하고 보니 보수 공사비가 많이 발생이 되면서 어촌계원들 몇몇이 반대가 심해 임시총회를 거쳐 다시 매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부안수협 관계자는 "곰소 어판장의 역할이 상실된 상태에서 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건물을 관리비를 지출해가면서 까지 수협에서 소유하고 있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면서 "어판장 같은 경우 수협자산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직접적인 매매는 하지 않고 입찰이나 공매를 통해 처리하는데 어촌계나 수산관련 법인이 1차 순위이나 어떻게 웅진영어법인으로 옮겨졌는지 대한 속사정은 정확히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웅진영어법인 B씨는 "진서어촌계에서 부안수협으로부터 어판장을 인수해 소득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조합원들과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 진서어촌계가 총회를 통해 나에게 떠 넘겼다"고 주장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 도시개발 '3차원으로'

시설물배치 등 빅데이터 분석 공간계획 적극 활용

전주시가 여러 시스템에 분산돼 있는 공간 정보를 통합해 토지, 주택, 건축분야 등 각종도시공간계획 수립에 활용키로 했다.

전주시는 지난 2월 전북지역 최초로 구축된 '국토공간계획수립 지원시스템(KOPSS, 콤포스)'의 활용분야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KOPSS는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rea Planning Support System)의 약어로, 도심 재개발 등 공간 계획 수립시 사업의 최적지를 찾아 과학적이고 투명한 공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GIS공간분석기법을 활용해 공간계획과 정책수립을 지원하는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이다.

전주시가 구축한 KOPSS는 그간 시

가 축적해온 공간정보와 함께 국토지리정보와 환경지리정보 등 유관기관의 공간정보를 통합한 빅데이터로 구성됐다. 시는 KOPSS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설명서를 만들어 관련 부서에 보급하고, 지속적인 시스템 활용 교육을 함께 실시해 직원 누구나 이 분석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KOPSS를 활용하면 입체적인 지리정보와 공간통계 등 다양한 공간 분석 방법론을 적용해 입지를 분석·선정할 수 있는 만큼, 공간계획이나 정책결정 과정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재 기자

10대 가출청소년들, 차량절도 겁없는 범죄행각

10대 가출청소년들이 차량절도에 인형 뽑기 기계 절도까지 생활비 마련을 위해 달리는 대로 범죄를 저지르다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27일 훔친 차량을 이용해 장난감 인형뽑기 기계를 싣고 달아난 혐의(특수절도 등)로 박모(18)군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0일 오전 2시 50분경 완산구 향교길 한 상가 외부에 설치된 시가 200만원 상당의 장난감 인형뽑기 기계를 차량에 싣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13세부터 18세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가출 청소년들로 구

성된 속칭 '가출패'를 구성, 지난 9일 훔친 차량을 이용해 한옥마을을 방문해 다음날 새벽시간대를 골라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새벽시간까지 한옥마을을 맴돌다 인형뽑기 기계를 발견하고 흔들러 기계 내부에서 목격한 동전소리가 들리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기계를 통째로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인형 뽑기 기계는 별다른 고정장치가 설치돼있지 않아 이들은 손쉽게 기계를 훔칠 수 있었다. 이들은 훔친 기계를 한옥마을에서 3km 떨어진 곳에 차량을 세우고 기계를 부수 현금 50만원 상당을 꺼냈다. /인진수 기자



전주 평생학습 강사학교 수료식. 전주시와 전주시평생학습관은 27일 전북대 박물관에서 수료생 9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전주 평생학습 강사학교 수료식'을 가졌다.

새만금환경청, 불법 오염물질배출 특별점검

새만금지방환경청(청장 조병욱)은 장마철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점검에 나선다.

하절기 특별점검·감시는 사전 홍보, 순찰·단속, 피해시설 복구지원으로 구분해 3단계로 추진한다.

우선, 1단계로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자율점검 협조문 발송 등 불법행위 예방에 초점을 맞춰 추진하

고, 2단계로 상수원 수계, 새만금유역 등 중점감시지역 주변의 하천순찰을 강화하고 폐수 다량배출업소, 대규모 축산시설 등 오염물질을 장기간 보관·방치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과 하·폐수종말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3단계에는 집중호우로 인한 시설과

손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수질오염 방지시설 등의 정상가동을 위해 한국환경공단 등과 합동으로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새만금환경청 관계자는 "특별감시기간에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 투기 등의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할 경우, 국번 없이 128(휴대전화는 지역번호+128)로 신고하는 등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 30대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1단독(이재은 부장판사)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된 송모(3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송씨는 지난해 8월 25일 0시50분경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4차례나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도 계속해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박용주 기자

햄버거매장에서 한정판 피규어 훔친 일당 '덜미'

익산경찰서는 27일 햄버거매장에서 한정판 피규어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씨(28)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5일 오전 2시35분경 익산시 중앙동의 한 햄버거 매장에서 햄버거를 주문한 뒤 카운터에 진열된 어벤져스 피규어 9개(시가 2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훔친 피규어를 매장을 나온 뒤 나눠 가졌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피규어를 보는 순간 갖고 싶은 마음에 충동적으로 훔쳤다"고 진술했다. /인진수 기자

전북경찰, 하반기 추진업무 보고회

우범자 재정비 등 104개 추진과제 선정

전북지방경찰청(청장 김재원)은 27일 상반기 기능별 치안계획의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하반기 치안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중점 추진업무 보고회를 개최했다.

전북경찰청은 올 상반기 경찰청 역점 추진 정책인 3대 기반과제(예방·과학·참여친안)의 선도적 수행과 도민으로부터 인정받는 전북경찰이라는 치안목표 달성을 위해 우범자 재정비 등 104개 추진과제를 선정해 집중 추진해왔다.

특히 경찰의 치안 만족도 향상 노력으로 상반기 도내 5대 범죄 발생 건수는 625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35건이 감소했다.

같은 기간 5대 범죄 검거율도 89.2%로 전국 1위를 달성한데 이어 교통사

고 사망자도 5명이 감소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또한 아동학대치사, 여성안전 특별대책 등 주요 이슈에 대해서도 세밀한 관리로 평온한 치안을 유지했다는 평을 받았다.

이같은 전북경찰의 노력은 경찰청에서 평가한 체감안전도에서 전북이 전국 2위를 차지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김재원 전북경찰청장은 "연초 수립한 치안계획을 기능별로 추진해 전년에 이어 우수한 성과를 내준 직원들에게 감사한다"며 "하반기도 도민을 위한 치안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올해 전북경찰의 목표인 도민으로부터 인정받는 전북경찰을 꼭 달성할 것"을 당부했다. /인진수 기자

한분 한분의 마음에 행복을 꽃피우는 금융생활의 따뜻한 동반자

기다리던 봄, 설렘 가득한 마음 곳곳에 행복이 전해지도록
전북은행이 따뜻한 햇살을 비추어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공익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을 위한 나눔 실천

서민지원
저소득층 가정 및 사회취약층을 위한 지원

학술/교육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

체육중진
문화단체 및 지역민들의 다양한 체육행사 지원

환경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환경보호 활동